

요셉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알라하바드 기도편지 101)

2022년이 저물고 어김없이 2023년 새해가 또 다시 밝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물고 천국에서 새날을 맞이할 날이 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새날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짝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짝에게 잉태된 짝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짝기 백성을 짝의 죄에서 구원할 짝이심이라 아니라.” (마1:20-21)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완전한 요셉의 아들로 사셨고 30세 이후 3년 반 동안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모습을 벗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물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천국복음이 아니라 오직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제게 필요로 하고 제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제가 유혹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달콤함을 주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부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예수가 주는 달콤한 능력과 이적은 원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겨내야 하기에 애써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7번째 말씀사경회)



2022년 12월5일부터 9일까지 17번째 말씀잔치인 말씀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경훈선교사 혼자서 모든 강의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전6시에 기상해서 묵상과 기도로 시작해서 오전에 3시간, 점심식사 후 오후에 다시 4시간, 매일 7시간씩 강의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그날의 강의를 정리하는 그룹미팅을 하고 나서 11시에 취침에 들어가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아직 수술 후유증으로 허리에 복대를 차고 있어서 7시간을 서서 강의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 할 때는 전혀 힘든 줄도 모르고 강의 하는 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1장에서 3장까지 강의하는데 3일이 걸렸고 마태복음의 8복을 강의 하는데 2일이 걸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6번째 복까지 밖에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하는 내내 얼마나 집중을 잘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잘 경청하는지 강의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다음을 기약하고 기도로 다시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역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다음을 기약하고 기도로 다시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역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다음을 기약하고 기도로 다시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역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발리지교회의 크리스마스)

알라하바드에서 기차로 1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인 잘랄가르 교회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23일 당일 오후에 출발하는 기차가 안개 때문에 8시간이상 연착을 해서 꼬박 하루가 걸려서 24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담요를 나누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교회에 마련된 게스트룸에서 하루 숙박을 했습니다. 성탄절 당일은 성탄절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준비한 찬양과 축하행사가 있었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와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식사와 애찬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성탄절은 단순한 연말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임을 깨닫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23 사랑의 담요나누기)

2022/23년 사랑의 담요나누기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제가 2년 만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밤,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사역자들과 함께 사랑의 담요를 가지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늘 담요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주어야 할 사람은 많기에 기도하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서 차디찬 바닥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어려운지 아직까지 후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매년 겨울 사랑의 담요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 말고도 거리의 사람들에게 담요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담요를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생명까지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6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면서 생색이 나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역들에 대한 유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가면서 선교는 성령으로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어 주어 아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영아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

내 안에 매력적인 육신의 예수를 따라가며 내게 유익을 주는 내 뜻대로 행하는 선교가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선교할 때 선교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정년까지 아름답게 선교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고 또 그것이 진짜 행복한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동역자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1. 11. 이경훈, 이영선, 이하성 가족이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수술한 다리와 발바닥의 감각신경이 속히 돌아와서 선교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2. 말씀사경회를 마치고 기도로 다시 각 지역으로 파송한 사역자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3.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어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4. 사랑의 담요를 받은 거리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5. 남은 인도 사역기간동안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연락처)

현지 주소 : 14/2A Church Lane, Prayagraj, UP, INDIA. Pin-211002
 현지연락처 : 국내 연락처 : 010-2741-3247(이경훈), 010-9991-5565(이영선)
 카톡아이디(한국폰: josephpatna / 인도폰: ald2007)
 후원구좌 : 358801-04-189171(국민), 301-0239-8352-51(농협)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
 첫 송금시 선교국 02-3459-1031/4로 이경훈선교사 후원임을 꼭 알려주세요.